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2호

[김현수 칼럼]

'체포자'를 아시나요?

김현수 (前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現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스포츠인권 #체육인보호 #스포츠윤리

대한체육회, 지도자에게 끔찍한 성추행 당한 학생선수 엄마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가

김세훈 스포츠경향 기자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후배 괴롭힘, 승부조작, 폭력·성희롱... 스포츠 비리 내부고발 3년치 들여다보니

이은지 YTN 기자

제주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주 지역사무소 설치 공식 요청

제주도에 스포츠윤리센터 생길까? 문체부에 설치 공식 건의

한형진 제주의소리 기자

사격金 진종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4번…사실상 국회 입성

경기장에서 정부청사로, 국회로…정부여당 몸 담는 스포스 스타들

박준상 영남일보 기자

체력측정 후 운동 추천→지역화폐 포인트 지급…"지역경제 상생 모델"

'운동하면 1년에 최대 10만원'…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김경태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김현수 칼럼] ‘체포자’를 아시나요?

2024.03.21

김현수
前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現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수학이라는 과목이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 최선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공부라고는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과목이다 보니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한다. 우리는 이렇게 수학 과목을 포기한 사람들을 ‘수포자’라 부른다. 이 신조어에는 많은 경우 ‘좋은 대학가기는 어렵겠군’이라는 비아냥도 포함된다. 수포자들은 수학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은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되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어차피 포기하게 될 수학이지만 어떻게든 부여잡아 보려는 나름의 노력은 하기 마련이다.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살아보려는 발버둥처럼 말이다.

한편 요즘의 학교에서는 체육을 포기한, 아니 전혀 하지 않는 학생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이들을 체육을 포기한 사람, 즉 ‘체포자’라 불러야 할 판이다. 대학입시가 과열되어 체육을 경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여가시간에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숨차게 놀던 아이들은 모바일 게임 삼매경에 빠진지 오래다. 그나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들은 새 학기가 되면, 같은 반에 뭔가 뛰는 폼(?)이 좀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되나 추려보기 바쁘다. 커진 덩치에 운동 부족인 아이들은 영락없이 운동 습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성인들의 뒤뚱거리는 모습을 닮아있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 매년 체력장을 통해 체력을 평가하고, 체육으로 국위를 선양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체포자’들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관하는 국제 신체활동과 건강 조사 결과에서 세계 146국 중 꼴찌 수준에 있고, 그 외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조사 지표 모두 심각한 경고등을 울린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도 수학을 포기해서 좋은 대학을 못갈까 안절부절못하는 것도 모자라 자칫 체육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공부하는 시간을 더 뺏길까 노심초사를 하는 웃기면서도 슬픈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마주하는 교육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덕체로 불리는 각 영역에서 균형 잡힌 인간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축이 심하게 내려앉은 불안한 모습으로 교육을 끌어 온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신체적 발달을 등한시하는 교육환경을 통해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하지 못한 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체포자’ 양산 교육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손흥민을 좋아하고, 김하성을 좋아하지만, 운동하기 위해 뒤따르는 학습권 박탈은 모든 운동 자체를 주저하게 만든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입시환경과 암기테스트 같은 입시제도는 균형 잡힌 인간을 지향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라 보기 어렵다.

이제 교육계는 ‘체포자’ 양산 교육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책상에만 붙들어 놓는 교육을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과 후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획기적으로 장려하고, 지역 내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평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은 학급 실장으로서의 봉사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운동부의 주장으로서의 책임과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과학 동아리에서의 배움과 지식 교류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에서의 기술 습득과 경쟁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길 필요가 있다.

어두운 근대사에서의 “體育立國”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목적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體育立國”은 어린 시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체육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건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체육이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로 써져야 할 것이다. ‘체포자’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탁구를 즐겼다던 옆집 사는 철수 아빠가 올림픽에 나가는 그날을 꿈꿔 본다.

자료 출처: https://www.newsmin.co.kr/news/100643/

스포츠경향
김세훈 기자

2024.03.25

대한체육회, 지도자에게 끔찍한 성추행 당한 학생 선수 엄마의 울음이 들리지 않는가

지난 1월 고교축구 승부조작, AD카드 도용으로 자격정지 총 8년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전지훈련 기간 중 학생 선수 어머니를 자기 방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윤찬영 판사)은 피고인 A씨(49)에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계 훈련이 이뤄진 리조트에서 선수인 아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와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자명하고 죄질도 대단히 좋지 않다”고 적었다. 강제 추행은 2023년 1월 경남 창녕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지훈련을 한 팀은 지금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교 클럽팀이다.

피해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축구협회 등에 요구했다. 그런데 윤리센터는 신고를 최근 기각했다. 센터는 “강제 추행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으나 A씨가 2020년 5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2027년 5월까지 축구협회에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체육회 공정위 규정에는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규정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도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성범죄 유죄 판결이면 협회 규정상 제명도 가능하다”며 “협회 공정위원회는 사안을 검토했고 엄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A씨가 상위단체인 체육회 규정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면, 축구협회 추가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최상위 단체인 체육회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비슷한 가해자들이 범법을 이어가도 체육단체 차원에서 철퇴를 내릴 수 없다.

대한체육회 규정보다 우위에 있는 게 국민체육진흥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는 아래와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골자)

이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를 넘어 취소해야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체육계 관계자는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한체육회는 징계 사각지대에 숨은 관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체육회가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비슷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와도 방치하겠다는 뜻”이라며 “잘못을 저지른 지도자를 엄벌에 처해야만 지도자, 선수,부모 간 건강하고 투명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출처: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403250736003&sec_id=520101&pt=nv

후배 괴롭힘, 승부조작, 폭력 성희롱... 스포츠 비리 내부고발 3년치 들여다보니

YTN
이은지 기자

2024.03.22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특히 올 7월에는 파리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더 큰데요. 스포츠 분야에도 인권침해나 비리 신고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체육단체는 이러한 징계요구를 받고도 경미하게 처분을 하거나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스포츠 분야 신고와 관련한 징계요구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 (이하 김동현)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사무관님, 스포츠 윤리센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김동현 : 우리나라 스포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위주의 승리지상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로 인한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입학비리, 횡령·배임 등 비정상적 관행들과 비위들이 그 동안 대한민국 스포츠가 이루어 놓은 수 많은 업적들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중인데요, 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 후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체육단체들이 해당나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나 비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동현 : 징계요구 대상이 되는 체육단체로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71개,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단체가 운영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대부분의 종목과 관련한 단체들이 해당됩니다.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괴롭힘, 차별이 있고요. 스포츠 비리는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보다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체육단체가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징계결정을 지연하고 있었나요?

◆ 김동현 : 지난 3년간 징계요구건 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건은 9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리도록 상당히 늦게 통보하였습니다. 심지어 2021년 요구건 중 6건, 2022년 요구건 중 26건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 박귀빈 :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운동선수 보호와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할 것 같은데요. 징계결정을 지연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나요?

◆ 김동현 :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운동선수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권침해 사실이나 스포츠 비리를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신고자는 어렵게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결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사태 해결이 되지 않아 신고자가 자포자기하거나 고립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 박귀빈 :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요. 국민권익위는 어떤 개선 방법을 권고하셨을까요?

◆ 김동현 : 징계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도록 했고요, 징계혐의 대비 부적정한 징계처분시에는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로 내려갈수록 학연·지연·혈연 등 정실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군, 구 종목단체 임원과 관련된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사건 진행을 상급기관인 시도 종목단체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은 채용과정의 공정을 원하고 있는데,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반영해서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도 징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경영공시해서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징계결정이 지연되고,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가 재발되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언제쯤 개선된 제도가 마련될까요?

◆ 김동현 : 국민권익위는 일부 규정은 6월까지, 법률 개정사항은 12월까지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부처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라는 개선안은 지난달에 법률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하는데 일조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귀빈 :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되어 7월 말 개막되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승패를 떠난 멋진 경기를 펼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김동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자료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2403221528104197

제주도에 스포츠윤리센터 생길까? 문체부에 설치 공식 건의

제주의소리
한형진 기자
2024.03.24

최근 제주시체육회장 갑질 의혹 논란으로 체육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제주도에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가 들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주 지역사무소 설치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제주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3일 문체부에 '스포츠윤리센터 제주 지역사무소 설치 건의' 공문을 제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2020년 8월 설립된 문체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운영 목표로는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 등 종합적 지원을 하며, 예방교육과 국내·외 정보공유를 통해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끊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고 소개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전국 다섯 개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첫 번째로 2021년 경기, 경남, 대전권 사무소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광주, 강원사무소를 개소했다.

제주도는 2021년 공모에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가 없었음에도 지역사무소 설치를 요청한 이유는, 최근 지역 체육계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둘러싸고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1일 제주시체육회 일부 직원들이 속한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지회 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꽃 배달에 직원 동원 ▲신협 가입 강요 ▲카드 발급 강요 ▲주말 경조사에 직원 동원 강요 ▲체육관 대관 업무에 관여 등을 제기했다. 최초 의혹을 전면 부인한 체육회장은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일부 의혹을 인정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과거 근무지 이탈, 훈련비 유용, 선수 계약금 편취 의혹을 받았던 체육계 지도자들이 현장에 슬그머니 복귀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체육계 문제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해도 조사관이 오가는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섬이라는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감안할 때, 비리나 인권침해 의혹을 다루는데 있어 체육단체 별 자체 대응보다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기관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건의했지만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 문체부 자체 판단뿐만 아니라 예산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판단까지 거쳐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문체부 장관 시도 국장 회의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설치를 재차 요청했다"며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민원은 39건이다.

자료 출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25159

경기장에서 정부청사로, 국회로… 정부여당 몸 담는 스포스 스타들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

2024.03.21

스포츠 스타들이 정부여당에 몸 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비례 2번은 탈북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비례 3번은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가 내정됐다. 다음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이다.

진종오 조직위원장은 2월5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됐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진 당시 대한체육회 이사 영입 환영식에서 "사격선수 진종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겼다"며 "그 집념과 의지가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 것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이사로 보여준 행정력은 경기력 이상이었다고 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만큼 이제 제가 여러분에 돌려드려야 할 시간"이라며 "체육계에 소외된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하나로 모아 스포츠인들이 힘을 합치면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당시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의 비례대표 4번은 사실상 국회에 입성했다고 봐도 되는 순번이다.

진 위원장에 앞서 정부에 몸 담은 스포츠스타도 있다. 바로 지난해 6월 발탁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다. 장 차관은 2005~2009년 세계역도선수권 4연패(2005·2006·2007·2009년)를 달성했다. 또 2004년 아테나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년 베이징에서 금메달, 2012년 런던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재 한국 역도 선수 대부분이 '장미란 키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입지적인 인물이다.

장 차관은 단순한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아니다. 현역 시절에도 '공부하는 선수'로 불렸다. 한창 활동하던 2005년 고려대에 입학,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용인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용인대 교수로 임용된 뒤 2017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주립대에서 유학했고, 2021년 용인대로 돌아왔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선임된 건, 2013년 '한국 사격의 전설' 박종길 문체부 2차관, 2019년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문체부 2차관에 이어 세 번째다.

장 차관의 총선 차출설도 있었다. 그러나 장 차관은 문체부에 남았다. 지난해 말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뉴스핌에 "장 차관이 임기를 한 지 오래 되지 않아 계속 문체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 차관과 곧 국회의원이 될 진 조직위원장은 각각 정부와 여당의 러브콜을 받고 승락했다. 그러나 최근 영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거절한 사례도 있다. 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2002 레전드' 박지성 JS 파운데이션 이사장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JS파운데이션의 '제12회 JS파운데이션 재능학생 후원금 전달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인재 영입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일에 대한 질문에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아직 그런 곳에 뜻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치와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정치인이 된다는 생각은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을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박 이사장은 수원에서 나고 자랐다. 수원이 총선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이자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 이사장을 수원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어떤 인재를 영입하면 좋을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된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스포츠 스타들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이 이미 확보된 상태니 정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고 정치신인으로 데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321010002774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2024.03.24

'운동하면 1년에 최대 10만원'…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경기도는 민선 8기 스포츠 정책공약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체력 측정을 통해 맞춤형 운동(걷기·자전거·등산)을 처방하고, 그 활동 성과에 따라 1년에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정책 방향 설정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메디플러스솔루션은 스포츠포인트제 개념을 '스포츠기본권 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국내외 사례 분석, 도민 설문 조사 등을 거쳐 ▲ 체력 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 처방 ▲ 특정 장소에서 운동 시 포인트 지급 ▲ 도내 문화·관광 장소와 연계한 지역경제 상생 모델 등을 사업 특성으로 제시했다.

이런 내용의 용역안을 놓고 도는 지난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 이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 모델을 최종 확정하고, 중앙정부 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시군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26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40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기본권 향상을 위해 경기도만의 특화된 스포츠포인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손목닥터 9988), 충남도(걷쥬), 화성시(스포츠데이 쓰리GO)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2142500061?input=1195m

주간 스포츠 소식

[세계를 보다]'성정체성 논란' 뜨거운 세계 스포츠계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0560

"OTT 구독자 2명 중 1명은 스포츠 중계가 구독에 영향 미쳐"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30000017?input=1195m

이도현·서채현 등 2024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25_0002673332&cID=10501&pID=10500

오타니 첫 공식입장 "나는 결코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걸지 않았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43983

NBA 사무국, 토론토 선수 불법스포츠 도박 혐의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6045700007?input=1195m

강진군 적극적 스포츠마케팅 효과 '톡톡'

https://www.ajunews.com/view/20240325110017077

실버 스포츠 각광.. 하반기 노형동 미리내공원에 파크골프장 개장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7946?feed=na

'타율 0.414' 이정후가 0표? 美 CBS스포츠 신인왕 전망은 'ERA 45.00' 야마모토

https://www.sportalkorea.com/news/view.php?gisa_uniq=20240326093938884&section_code=8211&cp=se&sp=B

경질 위약금 70억(?) 받는 클린스만 근황…스포츠매체 패널 등장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32508574952441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